

## 형질전환연초 KB301 및 KF116의 안전성 평가

이영구, 임흥빈, 손형욱, 문지영, 이동욱, 박성원<sup>1</sup>, 이기원<sup>1</sup>, 김영호<sup>1</sup>, 김상석<sup>1</sup>

한국인삼연초연구원 화학부, <sup>1</sup> 원료연구부

형질전환 농작물의 농가 보급 및 재배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의해 얻어진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. 저자들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원료연구부에서 개발한 두 종의 내병성 연초, KB301 및 KF116에 대한 안전성 검정의 일환으로 이들 단엽담배의 연기가 흰쥐기도 섬모에 미치는 영향 및 연기응축물의 유전독성을 측정하고 기존 재배품종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. 그 결과 흰쥐 기도의 섬모에 미치는 영향과 *Salmonella typhimurium* YG1024를 이용한 유전독성 평가에서 두 종의 형질전환 연초는 모두 기존 재배품종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이 결과는 내병성을 갖도록 형질이 전환되었을지라도 잎담배의 연소시에 생성될 수 있는 섬모독성물질이나 유전독성물질의 함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암시해 준다.